

# ‘선수단 규모 · 나이 차’ 각본 없는 드라마의 감동 요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6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선수들이 국적과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스포츠 대제전을 펼치고 있다. 선수들이 공정한 경쟁과 결과에 승복하는 스포츠정신으로 대회 남은 기간 어떤 감동의 드라마를 써내려갈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194개국에서 선수 2537명이 참가했다. 참가 선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132명), 중국(113명), 호주(108명), 이탈리아(102명), 러시아(96명) 순이다. 개최국인 한국은 82명, 이웃 국가인 일본은 75명이 참가했다. 대륙별 참가 국가는 유럽이 52개국(FINA 독립선수 포함)으로 가장

**선수단 규모, 미국 132명 최대 · 1명 국가 9곳**  
**최연소 12세 · 최고령 45세...부모-자녀 나이 차**

많고 이어 아프리카 46개국, 아시아 42개국, 아메리카 40개국, 오세아니아 15개국 순이다. 수영 선진국들이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켜 세를 과시하고 있는 반면 선수가 단 1명인 참가국도 9곳이나 된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있는 인구 5만6300여 명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는 제니퍼 하딩 말린(27·여) 선수 1명이 경영종목에 참가했다. 하딩말린 선수는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유일한 수영선수

다. 이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신티드르트,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튀니지도 선수가 단 1명뿐이다. 경영종목에 출전한 독일의 유스라 마르디니(21·여) 선수와 벨기에의 라미 애니스(28) 선수는 모국 대표가 아닌 국제수영연맹(FINA) 독립선수로 출전했다. 선수가 2명인 국가는 14개국, 3명인 국가는 42개국 등 선수가 10명 이하인 국가는 총 144개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회에 참가한 전체 선수 중 최연소는 2007년생으로 올해 만 12세인 카메룬의 지오르조 알라니(경영)와 토고의 아코우비 벨라리아조엘라(경영) 선수다. 최고령은 1974년생으로 올해 만 45세이며 폴란드의 안드레스 듀큐



대회에 참가한 전체 선수 중 최연소는 2007년생으로 올해 만 12세인 카메룬의 지오르조 알라니(경영)와 토고의 아코우비 벨라리아조엘라(경영) 선수다.

최고령은 1974년생으로 올해 만 45세이며 폴란드의 안드레스 듀큐

와 미국의 징거 후버가 나란히 하이 다이빙 경기에 출전했다. 종목이 다르지만 최연소와 최고령 선수의 나이 차이는 33세로 부모와 자녀 간 세대차를 이룬다. 지난 14일 아티스틱수영 듀엣 규정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러시아의 스페틀라나 로마시나(30·여) 선수는 출산 후 11개월 전에 복귀한 '육아맘'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대변인실 김원용 매니저는 "국가와 성별, 나이는 다르지만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되고 또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픈워터 5km ‘반선재 · 이정민’ “높은 벽 실감”

**빠른 스피드와 체력의 외국선수와 몸싸움 ‘당황’**

“생각보다 빠르고 체력이 좋은 외국 선수들과 경합이 무척 힘들었지만, 오픈워터 경기 첫 경험으로 좋은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17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5km에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로 처음 참가한 반선재(25·광주시체육회)와 이정민(23·안양시청)은 결승선에 끝인해 “처음 출전한 경험치고 잘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지만, 세계의 높은 벽을 온몸으로 실감했다”고 말했다. 반 선수는 “중위권을 노리고 처음부터 스피드를 내며 최대한 따라가 보려고 애를 썼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체력이 좋은 선수들과 몸싸움에다 선불살, 높은 파도에 무척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반 뒤에 처져 혼자서 외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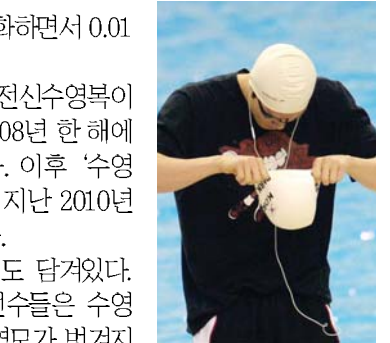
게 수영할 때는 누가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이내 이정민 선수가 함께 해줘 위안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픈워터의 좋은 추억을 갖고 꾸준히 참가할 예정이며, 이제 본업인 경영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될 것이며, 전국체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400m와 800m 경영이 주 종목인 반선재는 18일 오픈워터 팀 릴레이에 출전한다. 그는 “맨 먼저 출전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빠르고 민첩하게 수영하면서도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반선재 선수와 함께 오픈워터 5km를 처음 출전했던 이정민 선수도 “첫 코스를 도는 과정에서 선수끼리 치열한 경쟁에 부딪히면서 바닷물을 많

이 먹어 당황했다”고 오픈워터 첫 출전의 소감을 말했다. 그는 “체격은 모두 비슷비슷한 선수들이었으나 외국 선수는 경력과 노하우가 뛰어나다는 점을 경기에서 느끼게 됐다”면서 “우리나라도 오픈워터가 지변화돼 되길 바라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민 역시 반선재와 마찬가지로 본업인 경영에 충실하면서 이번 여수 해양공원에서 펼쳐진 오픈워터 스위밍 대회에 열리면 재미 있게 도전해 보겠다는 꿈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반선재는 이날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오픈워터 수영경기장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워터 여자 5km 경기에서 1시간 4분 26.9초의 기록으로 출전 선수 54명 중 46위를, 이정민은 1시간 4분 47초로 48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서은홍 기자

## 수영모 · 코마개 등에 숨겨진 이야기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수영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착용 장비가 적은 수영이지만, 종목별 장비에 담겨 있는 나름의 이유와 규칙을 이해하면 수영을 보다 재밌게 즐길 수 있다. 17일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오는 28일까지 경영·다이빙·수구·아티스틱수영·오픈워터·하이다이빙 등 6개 종목이 치러진다.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 있는 ‘수영의 꽃’ 경영 종목은 불 속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0.01초 차이를 놓고 겨루는 경기다. 때문에 한때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전신수영복이 유행이었다. 전신수영복이 일반화되던 2008년 한 해에만 세계신기록 108개가 새롭게 쓰였다. 이후 ‘수영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일며 지난 2010년 전신수영복 착용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기록 단축을 위한 노력은 수영모에도 담겨있다. 펠프스·박태환·윤양 등 최정상급 선수들은 수영모를 2개 착용한다. 입수 과정에서 수영모가 벗겨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수영이 흔들리거나 틀어지지 않게 수영모로 한번 더 감쌀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선수에 따라서는 머리를 단단히 감싸줘 물살을 가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수영모를 추가 착용한다. 반대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수영모를 1개만 착용하는 선수들도 있다. 오픈워터 종목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처리되는 만큼 경영과 크게 다르다. 레인이 없기 때문에 몸싸움이 치열하며 선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코스 곳곳에 안전 요원이 배치된다. 안전 요원들은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터보트 대신 카약을 이용한다. 전신수영복 제한 규정도 없다. 기록 단축의 이유도 있지만 조류 등 외부



경영·다이빙·수구, 수영모 착용·모양새 등 ‘각양각색’ 오픈워터, 전신수영복 제한 없고 카약 동원해 안전 관리 아티스틱, 예술 요소 고려해 수중스피커·머리 장식 활용

번수에 대응하고 이물질에 의한 부상을 막기 위해서다. 같은 이유로 반드시 수영모 착용해야 한다. 반면 다이빙은 수영모를 쓴 선수를 찾기 힘들다. 입수 과정을 평가하는 종목 특성상 수영모 착용의 이점이 크지 않고 입수 충격으로 벗겨지는 수영모를 불편해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규정도 딱히 없어, 일부 여자 선수들은 묶은 머리가 풀리는 걸 막기 위해 수영모를 착용하기도 한다. 일명 ‘수중 핸드볼’ 수구의 수영모는 특별하다.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귀를 보호하기 위해 마개 붙은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수영모를 통해 팀·포지션을 구별할 수 있다. 양 팀 골키퍼 모두 빨간색 수영모를 쓰지만, 수영모에 적힌 ‘1’의 색상은 파란색 또는 흰색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선수들도 파란색 또는 흰색 수영모를 착용해 팀을 구별한다. 배번은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2-13’ 번을 쓴다. 배번을 통해 포지션도 확인할 수 있다. 수비진인 레프트·라이트·하프백의 배번은 2·3·4번이다. 레프트·센터·라이트 포워드는 5·6·7번이 적힌 수영모를 착용한다. 공은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 방수가 되며, 표면이 거칠어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크기는 배구공보다 약간 큰 정도이며 공의 지름은 65~71cm로 남녀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영·음악·무용이 어우러지는 아티스틱수영 종목 경기장에도 곳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선수들은 경기 중 코로 호흡할 수 없다. 수중에서 거꾸로 었을 때 코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코마개를 착용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수면으로 떠올라 상체 연기를 할 때 입으로 호흡을 한다. 최근에는 자연스러운 표정 연기를 위해 루팅형 모양에 맞춘 코마개가 주로 쓰인다. 예술성이 중요한 종목인만큼 선수들은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수중스피커를 통해 배경 음악을 듣는다. 수중스피커는 경기장 수심(3m)의 절반인 1.5m 부근에 설치된다. 의상·분장 등도 주요 평가 요소인 만큼, 수중 연기 전후로 머리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여자 선수들은 뜨거운 물에 녹인 식용 젤라틴 가루 등을 머리를 발라 고정시킨다. 머리 장식에는 40여 분이 걸려 훈련 때는 수영모를 착용한다. 남자 선수들은 대체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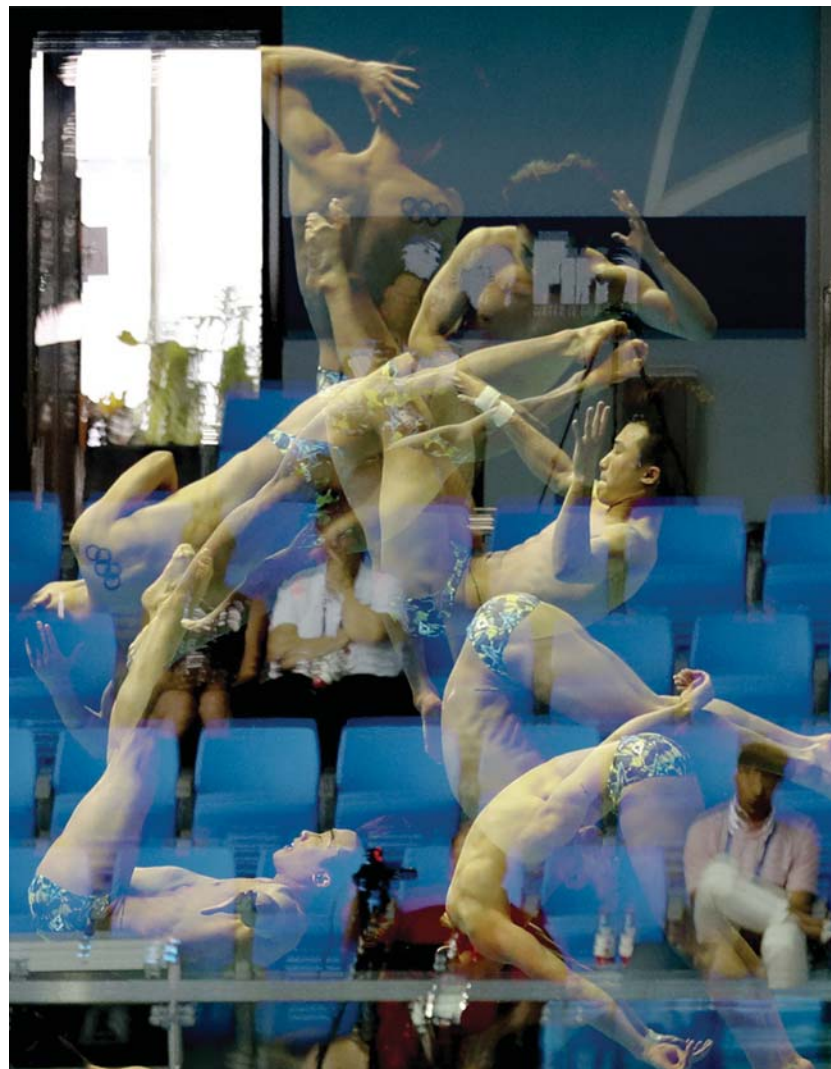
조인호 기자

## ‘한국 다이빙 간판’ 우하람, 도쿄올림픽 직행 티켓 확보

**남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승서 11위...결승 진출 성공**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21·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0년 도쿄올림픽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우하람은 17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승에서 1~6차 시기 합계 430.65점을 얻어 11위에 올랐다. 전체 18명 가운데 11위에 오른 우하람은 준결승 상위 12명에게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목표로 삼았던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에도 성공했다. 이번 대회 다이빙 개인전 상위 12명에게는 올림픽 직행 티켓이 주어진다. 이로써 우하람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성공했다. 우하람은 한국 다이빙 선수로는 유일하게 리우올림픽에 출전해 다이빙 남자 10m 플랫폼에서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다이빙 종목 결승에 오른 우하람은 11위에 올랐다. 우하람이 세계선수권대회 이 종목 결승에 진출한 것은 2015년 카잔 대회 이후 4년 만이다. 우하람은 카잔 대회에서 3m 스프링보드 결승에 진출, 한국 다이빙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결승에 오른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당시 우하람이 기록한 7위는 김수지(21·울산시청)가 이번 대회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따기 전까지 한국 다이빙의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사상 최고 성적이었다. 2017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하고도 기권했다. 당시 예선에서 우하람은 미리 제출한 기술을 수

행하지 않고 한 바퀴를 덜 비트는 실수를 했다. 심판이 눈치채지 못해 예선 13위에 올라 준결승권 티켓을 뺏지만, 우하람은 준결승 출전을 포기했다. 준결승 경기 내용은 3위에 오른 예선과 비교해 아쉬움이 남았다. 2, 4차 시기에 실수가 연달아 나왔고, 결승행이 아슬아슬했다. 1차 시기에서 앞으로 비틀어 뛰어 공중에서 두 바퀴 반을 돈 뒤 몸을 비트는 난이도 3.4점짜리 기술을 시도한 우하람은 76.50점을 받아 공동 7위로 출발했다. 뒤로 뛰어올라 다리를 굽혀 몸에 붙이는 턱(tuck) 자세로 세 바퀴 반을 도는 난이도 3.4점의 기술을 시도한 2차 시기가 아쉬웠다. 큰 실수가 나오면서 세 명의 심판이 4점대 점수를 주는 등 49.30점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순위는 16위까지 밀렸다. 우하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3차 시기에서 앞으로 뛰어 턱 자세로 4바퀴 반을 회전한 뒤 입수했다. 예선에서 실수를 저질렀던 기술이지만, 이번에는 깔끔하게 소화했다. 우하람은 무려 96.90점의 고득점을 이끌어냈다. 2명의 심판이 9.0점, 나머지 4명의 심판이 8.0점 이상을 줬다. 우하람은 6위까지 점프했다. 우하람은 4차 시기에 턱 자세로 세 바퀴 반을 도는 난이도 3.5점짜리 기술을 시도했지만, 또 실수가 나왔다. 50.75점을 추가하는데 그치면서 순위는 12위로 내려앉았다. 우하람은 5차 시기에 뒤로 뛰어 양 다리를 쭉 편 채 두 팔로 잡는 파이크(pike) 자세로 두 바퀴 반을 도는 난이도 3.0점짜리 기술을 무난하게 구사했



17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승 경기에 출전한 한국 우하람이 연기를 하고 있다.

다. 67.50점을 얻었는데 순위는 13위로 밀려 결승행이 아슬아슬했다. 6차 시기에서 우하람은 난이도가 3.9점으로 가장 높은 기술에 도전했다. 비틀어 뛰어 세 바퀴를 비튼 뒤 파이크 자세로 두 바퀴 반을 도는 기술이

었다. 근대적이지만 깔끔하게 성공했고, 89.70점을 보며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우하람은 18일 오후 8시45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결승에서 메달도 도전한다.